

관광지 화장실 잠기고… 한문·영어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

여수엑스포 개최지 맞나

정정해역 남해안을 무대로 한 크루즈 여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 국내 관광업계의 연계관광체계가 엄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반도 남해안 일대와 일본을 순항하는 2만2천t급 일본 크루즈선 '니쁜마루호'가 일본인 관광객 350여명을 태우고 지난 2일 오전 여수 신항 1부두에 입항했다. 그러나 이 날 하루동안 여수시내를 관광한 이들 일본인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이들은 8대의 리무진 버스에 나눠탄 뒤 국립공원 오동도 등대와 국

크루즈선 관광객들 “다시 찾지 않겠다” 불만

보 제304호인 진남관(鎮南館), 돌산대교, 수산시장 등을 둘러봤다. 그러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버스안에 설치된 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립공원인 오동도 등대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었고, 화장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일부 관광객이 이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항만당국은 화장실을 개방했다. 이와 함께 관광코스에 포함된 오동도광장에서의 음악분수대 공연은 예정시간보다 지역내 관광

객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수박람회를 알릴 절호의 기회인 엑스포 흥보관 관람은 일정 지역으로 인해 상당수 관광객들이 방문조차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관광객 미오코(여·82)씨는 "한문이나 영어로 된 안내표지판이나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고, 관광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했다"며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여겨지면 좋았겠다"며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흥보관은 가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관광객 안내를 맡은 국내 관

광회사 가이드는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지인데,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이 너무 미흡하다. 일정표대로 안내를 다 하지 못해 관광객들에게 불만을 삼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느 관광객이 여수를 다시 찾겠느냐. 관광 인프라가 세계박람회 개최지답지 않아 너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여행사에서 주관해 한 것으로 여수시와는 무관하다. 더구나 시에서 관광해설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관광회사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팬스타 허니호 여수 입항

국내 최초 연안크루즈 선인 팬스타 허니호(1만5천t급)가 3일 여수 신항 부두에 입항했다. 팬스타 허니호는 올해 '남해안의 비경 연안크루즈' 상품을 통해 10여 차례 여수항에 기항하게 된다. 한편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날 팬스타호 입항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갖고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park@

김제 의사조류독감 닦 살처분

출하된 달걀 추적 수거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의 닦 사육농장에 대해 긴급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적 조치로 해당 농장의 닦과 달걀을 모두 땅에 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

는 산란계 15만 마리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달걀 30만 개가 모두 매장 처리된다. 또 이 농장에서 최근 21일 사이에 출하된 달걀도 모두 유통 경로를 추적, 수거한 뒤 폐기한다.

한편 김제시 용지면의 닦 사육농장에서 지난 달 29일부터 현재까지 2천 930마리가 폐사했으며 지난 2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의사 AI로 판정됐다.

/연합뉴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유권자

광주 103만 4,393명 전남 149만 6,888명

최고령자 123세 변옥업 할머니

오는 9일 실시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광주·전남 유권자가 모두 253만 1천 2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최고령자는 123세인 변옥업(보성군 회현면) 할머니였으며, 광주 최고령자는 118세의 김승임(북구 문흥동) 할머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3일 "4·9총선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이의신청 및 직원 수정 등을 거쳐 확정된 총 선거인수가 103만 4천 39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 인구 141만 5천 634명의 73.1%로 지난 17대 총선의 98만 2천 809명보다 5만 1천 584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자는 50만 1천 539명, 여자는 53만 2천 854명이다.

전남도는 149만 6천 888명으로 17대 보다 4천 757명 줄었다. 남자가 73만 5천 364명, 여자는 76만 1천 524명이다.

/김주정·윤영기 기자 jjnews@

(1면에서 계속)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몬주르씨는 마음 편하게 일하기 위해 고향에서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서 다시 한국을 찾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돈을 탕진해 막상 고향에 돌아오면 한 푼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몬주르씨의 가족들은 달랐다.

그가 보내온 돈으로 의류도매 가게를 임대해서 열심히 점포를 늘려, 몬주르씨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4형제가 모두 점포를 하나씩 갖게 된 것이다.

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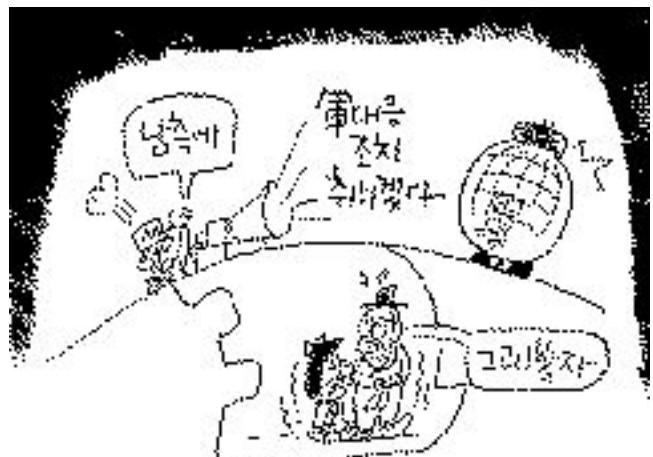
한국생활 8년만에 몬주르씨는 고향에 보내 돈을 빼고도 300만 달러(한화 4천 300만 원)를 모아서 귀국했다. 몬주르씨는 그 돈으로 다카에 의류 생산 공장을 만들었고, 이제 40여 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엿한 중소기업 사장이 됐다. 그가 이룬 '코리안 드림'이 이전 '방글라데시 드림'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으로 관광을 다녀오는 것이 작은 바쁨이라는 그는 한국으로 떠나려는 이들에게 "내가 잘못하면 내 조국이 육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꿈에 한 발짝 다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난해 10월 정

日만정

- 김종우



성폭행범 보단 안무섭다

광고 접수 안내

• ☎ (062) 220-0525

• FAX: 227-9500

상속한정승인 공고
방 최영순(350507-2028711) 상속에 대한 학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학정승인(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기간번호: 광주지방법원 청원부 2008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청원부 2008. 4. 4~2008. 6. 3 연락처: 목포시 용해동 152-20 동아파크 펜션 8-301 백인숙(011-632-4072)

공시 최고

사건 2008카9 신청인 최원석

목포시 산정동 1339-14

이제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 7. 28.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미제출하면 권리가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청원부

판사 임수희

갑자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양주택관리(법인표지자 박준기)에 대한

2008년 4월 1일 주권제출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주식 100주를 주

주권제출의 청탁을 받